

참고 6.

최근 주요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한 서베이 결과 및 시사점¹⁾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주요 금융 불안 요인을 포착하고 금융시스템에 잠재된 리스크 발생 가능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스템리스크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²⁾ 이하에서는 서베이를 통해 나타난 국내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특징을 분석하고, 주요국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스템 리스크 수준 및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국내 금융시스템 리스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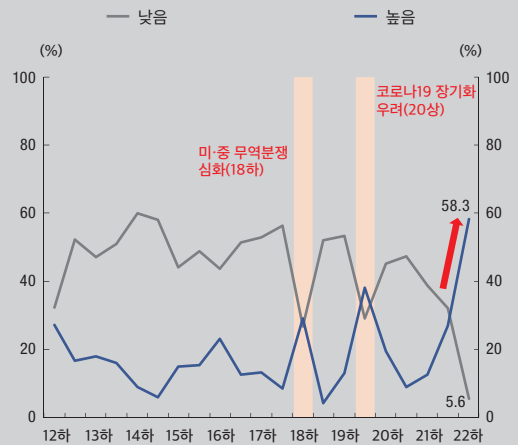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큰 폭 확대

최근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보면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급리 상승과 함께 증가 추세를 보여왔는데, 2022년 하반기 조사 결과³⁾에서는 단기(1년 이내) 시계에서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높다⁴⁾는 응답 비중이 58.3%로 2012년 서베이 실시 이후 가장 높은 수준⁵⁾을 기록하였다⁶⁾. 이는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었던 2018년 하반기(29.1%)와 코로나19의 장기화 우려가 커졌던 2020년 상반기(38.0%) 등 과거 충격 발생 우려가 높았던 시기의 응답 비중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이다.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그간 대체로 30% 이상을 유지해 오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 비중이 5.6%에 그쳤다. 이는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전반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해석된다.

단기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



자료: 한국은행

1) 본고는 백윤아·홍준의(금융규제팀)가 작성, 서평석(금융규제팀장)이 검토하였다.

2) 미국, 영국, 캐나다,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에서 정기적으로(반기·연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2012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 미국은 FRB의 금융안정보고서(Financial Stability Report) 중 Survey of Salient Risks to Financial Stability(22.8월말~10월 중순 실시), 영국은 영란은행의 Systemic Risk Survey Results(22.7.27일~8.26일 실시), 캐나다는 캐나다중앙은행의 Financial System Survey Highlights(22.2.22일~3.18일 실시)를 참고하였다.

3) 조사 대상자는 총 84명이었고 72명이 응답하였다. 동 결과는 한국은행 보도자료(2022.11.28) 「2022년 하반기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및 “매우 낮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한 것 중 “높음” 및 “매우 높음”으로 선택한 기준이며 마찬가지로 낮다는 응답은 “낮음” 및 “매우 낮음”을 선택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하 금융시스템 안정성 신뢰도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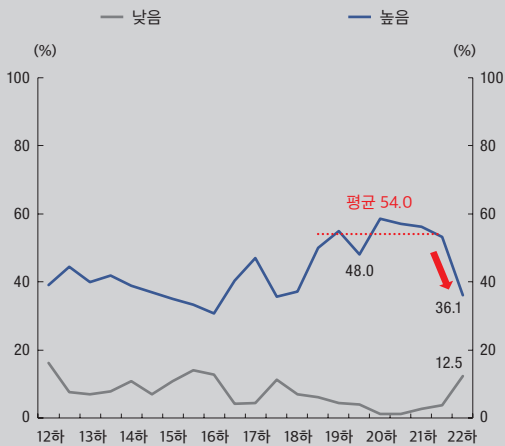
5) 2012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중 단기간 시스템리스크 충격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평균 응답비중은 16.6%이다.

6) 한편 중기(향후 1~3년) 시계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 비중도 2022년 상반기 32.9%에서 2022년 하반기 40.3%로 증가하였으나,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12년 하반기(52.7%)를 하회하였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하락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가운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하였다.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응답 비중은 2022년 상반기 53.2%에서 2022년 하반기 36.1%로 하락하였으며,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결과(2019년 ~2022년 상반기중 평균 54.0%)로서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금융·경제 전반으로 크게 확대되었던 2020년 상반기(48.0%)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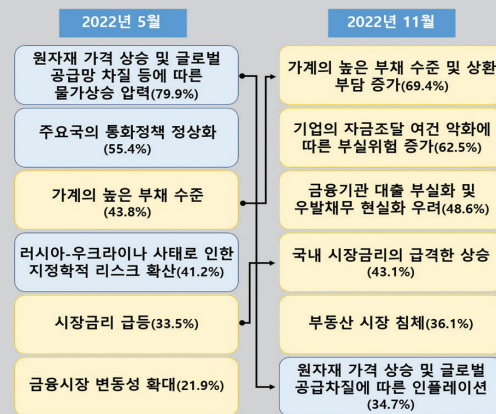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른 대내 취약요인 부각

2022년 하반기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금융 불안 요인으로 대외요인⁷⁾보다는 국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기업의 부실위험 등 대내요인을 주요 취약 요인으로 지목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증권회사, 캐피탈사 등을 주요 취약 금융업권으로 지목하였다. 저축은행의 경우 취약차주 여신 및 부동산 PF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높고, 증권회사 또한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규모가 커서 우발채무 현실화 등으로 인한 신용·유동성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기관 이외에 자산 가격 하락 및 실질소득 감소로 채무상환부담이 높아질 가계를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하였다.

국내 금융 불안 요인¹⁾²⁾의 변화



주: 1) 상위 6개(응답자별로 5개 선정). ()내는 응답비중을 나타냄
 2) 파란색 박스는 대외요인, 노란색 박스는 대내요인에 해당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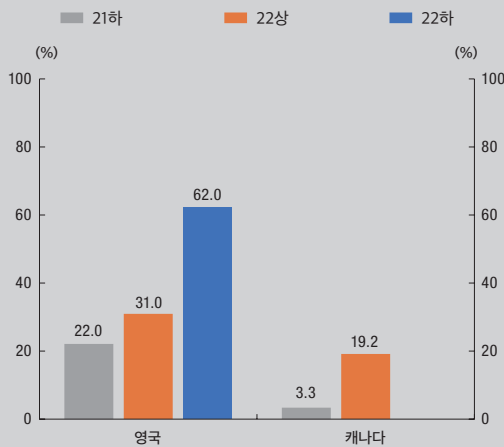
주요국의 금융시스템 리스크 평가

영국과 캐나다의 서베이 결과에서도 최근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금융시스템 내 높은 수준의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⁸⁾는 비중이 증가(22년 상반기 46% → 22년 하반기 72%, 역대 최고)·단기(31% → 62%) 시계에서 모두 크게 상승하였고, 캐

7) 지난 2022년 상반기 서베이에서 주목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22년 상반기:79.9% → 22년 하반기:34.7%),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55.4% → 16.7%)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41.2% → 18.1%) 등 대외 리스크 요인들은 응답률이 크게 낮아졌다.
 8) 1년 이내 영국 금융시스템 내 높은 수준의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다섯 가지로 구분한 것 중 "high" 및 "very high"로 선택한 기준이다.

나다(22년 상반기)도 금융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단기적(1년 이내)으로 높다⁹⁾는 응답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21년 하반기 3.3% → 22년 상반기 19.2%).

영국·캐나다의 단기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¹²⁾



주: 1) 향후 1년 이내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

2) 캐나다 중앙은행은 2022 하반기 서버이를 실시하지 않음

자료: Bank of England, Bank of Canada

영국의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¹⁰⁾고 응답한 비중이 소폭 하락(22년 상반기 46% → 42%)하였고 지난 6개월 대비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응답비중도 전기 대비 크게 늘었다(22년 상반기 10% → 22년 하반기 29%). 캐나다는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 복원력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¹¹⁾는 응답 비중이 68%로 서버이를 실시한 201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응답자들은 은행부문의 양호한 자본비율, 적정 수준의 금융규제 적용 및 재정·통화 당국의 팬데믹 대응 정책지원을 높은 신뢰도의 배경으로 언급하였다.

한편 영국,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버 리스크 등이 주요 금융 불안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영국에서는 사이버 공격, 지정학적 리스크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2회 연속 상위에 올랐으며 국내 정치리스크, 팬데믹 리스크, 기후 리스크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향후 12~18개월 이내 발생할 주요 리스크로 인플레이션 지속 및 통화정책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시장 유동성 축소 및 변동성 확대 등을 선정하였다. 캐나다는 러시아의 보복성 사이버 공격 등 대외 사이버 리스크를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하였고 지정학적 리스크, 고인플레이션 및 저성장, 자산가격 조정, 국내 재정·통화정책 리스크 등을 여타 주요 금융불안 요인으로 언급하였다.

주요국 금융 불안 요인¹⁾

영국	미국	캐나다
사이버 공격	인플레이션 지속 및 통화정책 긴축	사이버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인플레이션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 정치 리스크	시장 유동성 축소 및 변동성 확대	고인플레이션 및 저성장
팬데믹 리스크	높은 에너지 가격	자산가격 조정
기후 리스크	중국-대만 갈등	국내 재정·통화 정책 리스크

주: 1) 2022년 하반기 금융 불안 요인으로 응답비중이 높은 순서 기준(캐나다는 2022년 상반기)

자료: Bank of England, Federal Reserve Board, Bank of Canada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 지정학적 리스크, 사이버

9) 캐나다 금융시스템을 훼손할 수 있는 충격의 발생 가능성을 다섯 가지로 구분한 것 중 “moderately likely” 및 “extremely likely”로 선택한 기준이다.

10) 향후 3년간 영국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다섯 가지로 구분한 것 중 “very confident” 및 “complete confidence”로 선택한 기준이다.

11) 캐나다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수준을 다섯 가지로 구분한 것 중 “very confident” 및 “completely confident”로 선택한 기준이다.

크, 기후 리스크 등 우리나라에서 크게 주목받지 않는 요인¹²⁾이 주요 리스크로 대두되었다. 특히 사이버 리스크는 영국에서 금년 상반기 모두 1순위로 선정되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금년 상반기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선정되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보복성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최근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와 주요국에서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나라는 2022년 하반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폭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그간 누증되어 온 가계·기업 부채, 높은 부동산가격 등이 금리 상승에 따른 유동성 축소를 계기로 금융시스템 불안을 촉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한편 금번 시스템리스크 서베이에 응답한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으로 ①자금시장 경색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및 시장과의 소통 강화, ②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관리 및 잠재리스크 파악을 위한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③가계부채 및 경기침체 등을 감안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2) 우리나라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안 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은 18.1%로 전기(41.2%)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기후 리스크 및 사이버 리스크를 불안 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은 각각 2.8%, 1.4%에 불과했다.